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동권 제3호 [매월] 등록번호 : 서울 라 09006 발행일 : 2007년 3월 1일 발행인 : 장민기 인건개발연구원(KHIHDI) 주소 : 135-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2203 2500(4) F.2203 1974 www.khihdi.or.kr 디자인 : pas365 인쇄 : (주)동양인쇄 T.462 6323

마음의 근대화, 도덕적 근대화가 진정한 대한민국 선진화

머릿글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차장 한우덕
3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노다 가즈오

커버스토리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진현

Health Info 정경연한의원 원장 정경연

지자체특강 반부패국민연대 고문 서생현

발행인 편지

세상을 보는 눈 한국웃음센터 원장 한광일

회원 & 연구원소식

두바이 시찰단

독서경영 캠페인

LMI & YOU

Life & Story 해피라이프개발원 원장 조용모

조순칼럼

표지인물 김진현 이사장 / 사진 오경근 원장

3

2007 March



사랑한다면 간간하게

남편의 하루를 시원한 코웨이 한 잔으로 깨우는 사랑

아이의 건강을 코웨이로 자꾸자꾸 채우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소중한 사람일수록

코웨이로 간간하게 챙겨주세요!

웅진코웨이로 사랑을 가득 채워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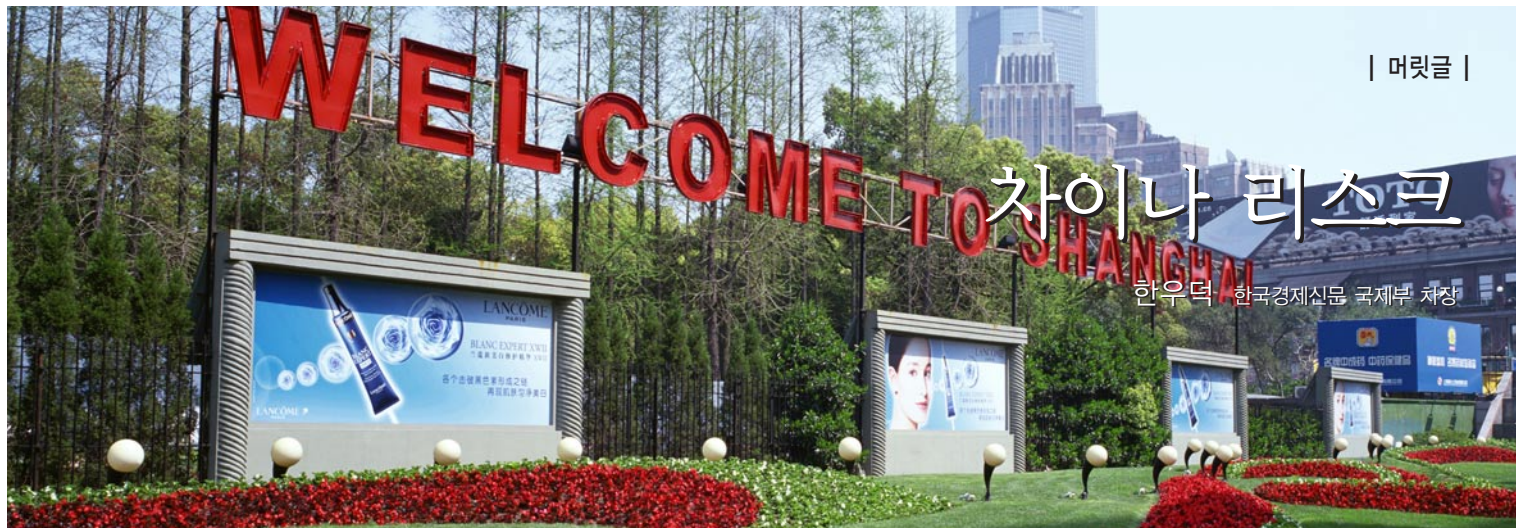
CHP-03AR/L

제품 렌탈 및
구입문의처

■ 1588-5900

02)2644-9626, 02)3481-0759, 02)757-7591, 02)456-1384, 02)511-1234, 02)522-8627, 02)727-4230, 02)727-4242, 02)2217-3322, 02)566-4075, 03)1243-6583, 03)1214-0061, 03)1901-2384, 03)1757-5200, 03)1235-9888, 03)2455-1900, 03)3264-5200, 04)2484-1833, 04)2486-1500, 05)1623-3187, 05)1647-5152, 05)1863-2401, 05)3257-6446, 05)3250-6868, 05)3744-0546, 05)4281-0344, 05)5251-5817, 05)5321-0388, 05)5746-8925, 06)2373-0928

■ 렌탈하우스 문의처 : 02)2172-1671 ■ A/S신청 및 코디 채용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588-5100(주말 휴일도 신청 가능) ■ 품질보증기간 : 1년 제품 하자 발생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청약의 철회) 2,3 항의 의거 환불, 교환



차이나 리스크

한우덕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차장

설 명절이 지난 지금, 중국진출 기업들이 하나 같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다. 명절을 쉬러 고향으로 갔던 중국 직원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월급을 올려주고, 특별 수당을 준다고 해도 설 직후 20~30%의 직원 이탈은 각오해야 한다는 게 광둥성 둥관(東莞)에 진출한 한 투자기업 사장의 푸념이다. 공장의 빈자리를 보는 사장들의 속이 타들어 간다.

중국비즈니스가 예전 같지 않다. 현지 직원 임금이 급등하고 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규제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때문이다. 공회(노조)의 지위 강화, 가공무역 면세 혜택 폐지, 법인세 인상, 엄격한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가 한국 투자기업을 옥죄고 있다. 연간 30%를 웃돌던 대 중국 수출증가율도 작년에는 절반수준으로 푹 떨어졌다. 비즈니스환경 악화를 견디지 못한 일부 투자기업들은 설비를 포기한 채 '야반도주'를 감행하기도 한다.

이 같은 흐름은 우리 언론에 '차이나 리스크'라는 말로 등장한다. 정부, 기업도 차이나 리스크 대책을 짜야한다고 난리다. '차이나 리스크'는 중국관련 세미나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이쯤에서 차이나 리스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린이푸(林毅夫) 북경대 교수가 '쌍결(雙缺, 두 개의 결핍)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 요지는 이렇다.

"중국의 외자기업 정책은 달러와 국내자금이 모자랐을 때, 즉 '쌍결시기'에 만들어졌다. 당시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 외국기업에 많은 특혜를 제시해야 했다. 그러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선 지금은 달라졌다. 오히려 투자자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쌍결시기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정상적으로 바꿔야할 때가 됐다"

이제 외자 없이도 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으니, 그 동안 외자에게 주었던 특혜를 거둬들이자는 게 이 칼럼의 요지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현실화하고, 노조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환경오염 업체는 도시에서 몰아내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철폐하는 등의 조치는 '정상화 과정'이라는 얘기다. 중국이 이를 '정상화'로 보는 한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던 더욱 엄격

한 규제를 시행할 게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정상화'정책이 우리에게 차이나 리스크로 둔갑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사업이 그동안 특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국기업에 주어지던 특혜가 사라지니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차이나 리스크는 결국 외부(중국)가 아닌, 우리 내부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게 차이나 리스크의 본질이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 할 수 있는 경쟁력을 우리 내부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여건이 정상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보따리를 싸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이 차이나 리스크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기술력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 중국기업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우리 기업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양곡간 생산 산업체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부품 소재분야 핵심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 확실한 기술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가는 업체는 백전백패다.

또 다른 차이나 리스크 극복방안은 서비스업에서 찾아야 한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가입에 따른 개방 유예기간이 작년 끝남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나서고 있다. 금융, 물류, 유통,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집중 공략하면, 성공 여지는 충분하다. 이미 KTB는 벤처투자 한 건으로 1,000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도 했고, CJ홈쇼핑은 상하이 유통시장의 10대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다. 패션브랜드인 EXR은 중국 청소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밖에도 성공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중국투자에서 제조업 시기가 지나고 서비스업 시대가 온 것이다.

날로 높아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는 우리에게 중국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할 시기가 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人間**



한우덕 차장

1963년 생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중국학 석사, 中 상하이화동(華東)사범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국제부, 정치부, 정보통신부 등을 거쳤다. 99년부터 06년까지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중국전문기자로 국제부 차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중국, 13억의 경제학' '뉴차이나, 그들의 속도로 가라' '뉴차이나리더, 후진타오' '경제특파원의 신중국견문록' 등이 있다.

3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을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 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철 명지대 건축대학 학장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 / 베네치아 건축대학, 뉴욕 컬럼비아 건축대학원, 베이징 칭화대학, 충칭대학 객좌교수 / 아키반(ARCHIBAN) 건축도시연구원 원장 / 건축작품 : 예술의 전당, 영화박물관, 베이징 iCBD 외 / 도시설계작품 : 여의도 마스터플랜, 베이징 경제개발특구, 취푸 특별신도시 외
<전시회> 베니스대학, 베니스시 초청 '서울 건축과 도시'전, 크로아티아 미마라 뮤지엄 '백남준-김석철' 2인전 외
<상훈> 제1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보관문화훈장, 아시아건축상 금상, 베네치아 건축 비엔날레 특별상 외
<저서> 여의도에서 새만금으로, 2000년 한국인의 주거,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외

나는 한반도의 희망을 설계한다

1492회 3월 8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굵직한 도시 설계와 건축으로 이름을 알린 김석철 교수는 작년에 40년간의 작업을 한데 모은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전시회를 통해 하나의 건축을 넘어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을 넘어 한 국가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광활한 역량을 보여준 한국 건축계의 원로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비롯해 서울 예술의 전당 등이 그의 작품이다. 그의 도시 설계안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중국에서 공자의 향도인 취푸(曲阜) 문화교육관광도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자의 묘와 공림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 최첨단 디지털 도시를 건설하자는 제안으로 이 같은 '디지털 시티'의 모델개발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국은 지식정보화에서 세계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도시건설의 기본 기술인 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디지털 시티 모델 개발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5000개 도시, 인도의 3000개 도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중국과 인도의 신도시 건설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석철 교수를 초빙하여 미래의 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와 지속가능한 한반도 도시 발전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건축가로서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선 21세기 동북아를 향한 국토개발의 관점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우리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

1493회 3월 15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우리는 그 동안 역사교육에 있어 대체로 자랑스럽고 훌륭한 것들만을 가르치고 배워 왔다. 이런 교육은 강대국에 둘러싸인 약소국으로서 많은 침략도 받았지만 그런 중에도 우리의 얼을 지키고 문화를 지켰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고백'하는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 이면에는 부끄러운 면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양면성을 무시하고 한쪽만을 부각시켜 다른 한쪽을 잃는다면 반박에 모르는 것이 된다. 허물의 역사와 부끄러운 역사도 역사화시켜서 이를 통해 바르지 못한 것은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진정한 역사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이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진실을 거스르고 있고,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송두리째 그들의 역사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외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했던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현재로 좀 더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국사회를 세계화시키기 위해 역사왜곡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계획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성대 총장이자 친일인명사전편찬 위원장으로서 타협하지 않는 절개로 대쪽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윤경로 총장을 초빙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해 어떤 한국문화와 역사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경로 한성대학교 총장

고려대 사학과 졸업 / 고려대 교육학 석사 / 고려대 문학 박사 / 한성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중앙위원회 의장 / 한성대 교수협의회 회장 /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 (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공동대표 / 서울 YMCA 시민노동위원회 위원장 / (사)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 (사)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상훈> 교육부장관표창
<저서> 한국근대사의 기독교사적 이해, 안창호일대기(공저), 105인사건 공판 참관기 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

연세대 철학과 졸업 / 美 하버드 비즈니스스쿨(PMD) 및 U.C. Berkeley HAAS School 수학 / 코오롱그룹 회장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 (주)코오롱 구미사업장장 / 코오롱개발(주) 사장 / (주)코오롱호텔 사장 / 코오롱구조조정본부 사장 / 코오롱 부회장 /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회장 /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이화여대 겸임교수 / 코오롱그룹 고문 / 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경영은 예술이고 문화도 경영이 필요하다 - 세종문화회관 혁신이야기

1494회 3월 22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는 정보지식혁명시대를 넘어 문화경쟁력의 시대로 문화예술적 마인드 없이는 경제성장도 없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평가받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문화예술업'이라는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서울의 대표적 공연예술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은 그 동안 직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마인드가 부족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공공에 이바지하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런데 30년간 재계에 몸담았던 김주성 사장이 취임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이 변하고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였던 9개 산하 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노조와의 갈등이 해소됐다. 그리고 공연장을 벗어나 관객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며 화제성,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관객과 호흡하고 마음을 나누는 예술활동으로 감동을 선사하는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등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함께해요 나눔 예술' 횡수가 240회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해부터 1000원만 내면 한 달에 한 번 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도 선보였다. 문화예술계 출신 CEO가 대부분이던 '문화예술업'에 뛰어들어 경영도 예술이고 문화에도 경영이 필요하다는 경영철학을 도입한 결과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극장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경영에 임하고 있는 김주성 사장을 초빙하여 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을 알아보고, 세종문화회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혁신을 통한 내일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오준호 KAIST 기계공학과 교수

연세대 기계공학과 졸업 / 연세대 기계공학 석사 / 美 U.C. Berkeley 기계공학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원 신기술창업지원단장 /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과 교수 / 2004년 한국형 휴먼로봇 '휴보' 개발 / 2005년 알버트 휴보 개발 (상훈) 2004 올해의 카이스트인, 제23회 정진기연논문대상

인간형 로봇 '휴보'와 떠나는 미래로의 여행

1495회 3월 29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로봇이 집안 일을 대신해 주고 위험한 지역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들이었지만 서서히 그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걷는로봇, 청소로봇 등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에서도 로봇의 주가는 상승세다.

우리나라 로봇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5위권에 진입해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짧은 개발 역사를 감안하면 고속성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보행로봇은 한국과학기술원 오준호 교수팀이 3년의 연구 끝에 지난 2004년 말 선보인 '휴보(HUBO)'가 물꼬를 텄다. 시속 1.25km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인간형 로봇 '휴보'는 41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보행은 물론 악수, 인사, 손 흔들기 등을 할 수 있다. 이후 상대방에게 인사말을 건네는 수준까지 발전한 알버트 휴보가 나왔다. 이렇듯 이미 로봇시대는 시작됐으며 앞으로 20년 후면 로봇이 일상화되고,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마치 우리 생활 곳곳에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컴퓨터처럼 로봇의 존재를 느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에 우리는 로봇화시대를 대비해 단순한 로봇기술 종주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개발자, '휴보의 아버지' 오준호 교수를 초빙하여 국내 첫 2족 보행로봇인 휴보의 향후 진화계획에 대해 들어보고, 인간형 로봇을 통해 구현될 미래사회의 모습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제1489회 창립 32주년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2월 8일(목)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일본 경제부활의 빛과 그림자

노다 가즈오(野田一夫)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의 사람들, 특히 지도층이나 지식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이 주된 이유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가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반수의 국가들은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성장을 넘어 OECD 회원국이기도 하다. 선진국클럽이라고 하는 OECD의 대부분은 유럽 국가들과 구미제국들이고 아시아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러나 우리 아시아인들로서는 구미제국이 아시아를 볼 때, 희망보다는 오히려 '불안', '위협'이라는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식해야 한다. 즉, 구미제국 사람들은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 자원문제, 군사문제 등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구미제국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불안이라는 의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불안의식은 구미제국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과 일본인도 느끼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에 각국 개별적으로 대응하

는 것보다 한일 양국이 깊은 제휴관계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민주적 정치체제 정착, 경제격차 축소 등 한일 양국 점차 가까워져 이제 세계적인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과거 한일관계에서 깊은 제휴관계라는 것은 용이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현대에 들어 한일 양국의 깊은 제휴관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깊은 제휴관계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첫째, 국민에게 다양한 자유를 원칙 보증하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정착되는 것이다. 다른 아시아 국가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미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확실하다. 또한 한일 양국을 경제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경제격차가 상당할 정도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격

차는 20년 전에는 굉장히 벌어져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일본은 80년대 방만한 경제운영과 교만함으로 인한 90년대 거품경제붕괴로 근 10년간 경제성장이 멈췄다.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 약 6년간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성장력'이라는 것은 매우 미약하다. 한국의 파워에 비해서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예전의 성장력을 되찾아서 과거의 한일 경제 격차처럼 큰 차이가 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경제예측에 있어서는 신용력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일본경제연구센터에서 '세계경제장기전망'이라는 향후 50년간의 경제를 예측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여기서 실질GDP(per capita, 1인당 국민소득) 신장률을 보면 2020년에는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거의 없어지고, 2050년에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50년이 돼도 한일 양국과의 격차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예측 모두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성장동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이 제 생각대로 성장해준다면 확실하게 한일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다면 더욱 더 한일 양국은 선진국으로서 2050년까지 그 위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에 각각 대응하기보다는 아시아의 성장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

일본인들 한국에 대한 신뢰 높아지고 있어

양국의 감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새로운 시대 열 수 있을 것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세 번째 문제로 이것은 이론이나 이치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이다. 바로 전통적인 상호 불신이나 편견이 크게 해소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두 조건이 만족되더라도 세 번

째 조건이 만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 양국민의 신뢰감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 21세기 들어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많은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일반국민, 지도자들의 큰 반감을 샀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이즈미 총리가 잘못해서 반감을 샀지만 고이즈미 정권 하에서의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정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제 나이가 80인데, 중학교 때 전쟁 중의 일본을 경험했다. 대학생 직후에는 폐허의 일본을 보면서 일본 경제성장을 봤다. 이러한 전쟁 전부터 전쟁 후를 살아온 일본인의 증언으로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 기간동안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다. 또한 염원하건대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감정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지금 '한류붐'이라는 것이 아시아 전체에 불어 닥쳤다. 일본에서도 한류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2003년 NHK에서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다. 이를 계기로 일반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주연 배우인 배용준씨는 일본에서 일약 스타가 됐고, 3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배용준씨가 일본공항에 도착했을 때 1만 명의 일본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신문을 보니 2005년에 그의 소득이 333억원이라고 했는데, 그 중 90%는 일본에서의 소득이었다. 배용준뿐만 아니다. 제 아내가 지금 열심히 보는 드라마 중 하나인 '대장금'에 나오는 배우 이영애씨도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한국인의 해외 활약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클래식을 좋아해서 한국의 정명훈씨가 일본에 오면 반드시 공연장을 찾는다. 그런데 그가 해외에서 활약하다가 서울오케스트라로 돌아오신 것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도 오자와 세이지라는 정명훈에 버금가는 지휘자가 있는데, 그는 정명훈과 달리 한번 일본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버렸다. 80년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지금의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이런 것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이제 한국인을 좋아하게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 한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하는 것이다. 우리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대일감정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지언정 많은 일본인들이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와 같이 전쟁 전이나 전쟁 중이나 전쟁 후나 한번도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지 않고 죽는 일본인이 많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제가 처음 알았던 한국인 친구는 미국 유학생 시절에 알게 된 친구이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일인데, 당시 아시아인의 미국 유학은 드문 일이었다. 일본인들은 걸음이 좀 느린 것이 특징인데, 나는 남들보다 걸음이 빨랐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불렀다. 돌아보니 한국인이 말을 걸길래 한국어를 몰라 영어로 대답했다. 그 인연으로 가까운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한국 유학생이 나를 혼계하면서 화를 냈다. 자기는 일본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는 일본인의 대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결국 분위기가 험악해졌는데 내가 "당신 얘기를 들어보

니 한국에는 모두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다'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그가 한국사람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 일본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철학은 국적을 불문하고 좋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그가 약수를 청하며 친구가 되자고 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일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좋은 프렌드십만 있으면 국가간의 좋은 관계는 유지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인 친구 몇 명쯤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인은 일본 총리가 신사를 참배하니까 전체 일본인이 그렇다는 식으로 짐작하는 것 같다. 일본의 많은 국민들은 한국의 TV나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에 대한 신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일본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만 누그러진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전후 '냉전체제' 등에 업고 일본경제 급속도로 성장 그러나 80년대부터 '일본의 교만함' 나타나기 시작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TV에서 일본특집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중국방송에서는 일본이 전쟁 전의 실력과 저력을 발휘하여 경제성장을 했다고 봤다.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전후 일본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어디까지나 국제관계의 변화 때문이었다. 바로 '냉전'이 전쟁 직후에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행운이었다. 냉전체제라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게 거꾸로 작용한 것 같다. 전형적으로 본다면 점령정책만 봐도 그렇다. 일본은 한국처럼 전체가 점령당해서 분단되는 상황은 맞지 않았다.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한반도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한 6.25전쟁은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일본도 미국에게 점령당했지만 미국의 점령정책은 일본의 전쟁 전의 정책을 180도 바꾸는 점령정책이었다. 당초 일본 점령군의 경제정책은 일본이 침략한 나라의 경제성장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엄격한 정책이 반년 지나니까 180도 바뀌었다. 점령정책이 바뀌면서 두터운 미국의 경제원조를 얻은 직후에 한국에 6.25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은 행운을 맞았다. '한국의 불행이 일본의 행운'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 전혀 얘기치 않았던 국제정세의 변화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이다.

일본경제는 1960년대부터 이미 구미 선진국을 따라잡았다. 1970년대 일본은 시련의 시기였다. '닉슨쇼크'라고 해서 통화위기가 왔다. 73년, 79년에는 석유위기가 찾아왔다. 70년대 당시 일본은 90%의 자원을 중동 석유자원에 의존했기 때문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일본경제가 끝장났다고 했다. 그러나 70년대에는 아직 일본의 좋은 면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관민이 합심해서 위기에 대처해 결국 80년대에는 경제의 성장성, 안정성에 있어 유수의 실적을 남기게 되었다. 8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 일본, 서독을 두고 세계경제성장을 이끄는 3대 기관차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일본은 80년대부터 이상하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70년대까지 일본은 없는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성장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일본은 스스로 '이미 우리는 대국이다'라는 '교

만한 일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 생각에 80년대 들어 일본은 지도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이제 일본은 선진대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주도한다'는 교만함이 시작된 시기라고 본다. 80년대 일본 주가가 급상승했는데, 일본 신문에서조차 일본의 토지를 다 팔면 미국 4개를 살 수 있다는 바보 같은 기사가 나왔다. 이것을 보면서 일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제도 결국 사회와의 연동성이 깊다. 그래서 버블경제, 버블이라는 것은 경제현상이 아니라 사회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이상해진 채로 버블경제를 맞았기 때문에 일본이 이를 재건하기 위해 10년이 걸린 것이다.

최근 일본의 호경기는 과거와 달리 성장력 약해 '풍요로운 일본'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현상이 주는 교훈

현재 일본은 전후 최장의 호경기라고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다. 일본은 60년대, 80년대, 그리고 현재의 호경기를 3대 호경기로 본다. 각각의 호경기의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의 호경기와 지금의 호경기를 비교한다면 확실히 지금의 성장력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학자치고 60년대, 80년대의 경제성장동력을 되찾으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면에서 일본은 성장경제에서 성숙경제 단계로 진입했다. 제 염원으로는 한국은 성장경제를 유지해주면서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을 바란다. 이는 한국인의 책임이자 여러분의 사명이다.

일본경제가 어떨 것인지가 여러분의 관심이겠지만 사실 경제가 문제는 아니다. 과거 일본은 가난한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달성한 지금 일본은 큰 오산을 겪게 됐다. 즉, 풍요로움만 달성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의 풍요로운 일본은 근친자간의 살인·상해사건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의 증가를 보더라도 풍요로움을 목표로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풍요로움으로써 이런 현실이 도래한 것이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 고령화가 급속한 추세라는 것을 익히 들었다. 이것은 경제에 있어 큰 영향을 준다. 노동력 부족이나 질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대조적인 모습으로 미국은 3억 인구를 넘어섰다. 미국이 2억 인구를 달성한 것이 40년 전이다. 또한 일본이 1억 인구에 도달한 것이 같은 시기인 40년 전이다. 그럼 미국 2, 일본 1인 1:2의 인구비율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대답은 1910년부터 80년간 1:2의 인구비율을 유지했다. 인구학자들 얘기로 미국은 앞으로도 인구가 증가해서 50년 후에는 4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그러나 일본은 그 때 확실히 1억 이하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본의 인구증가는 국책으로써 장려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책으로 이민을 통해서 인구증가를 꾀했다. 지금은 히스패닉을 받아들여서 3억 인구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일본은 풍요로움 하에서 그 혜택을 즐기기 위해서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폐쇄정책을 취했을까. 그것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한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미국은 사회혼란이라는 것을 100년, 200년 전에 이미 체험해봤다.

그러나 일본은 이질적인 존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생각은 글로벌시대에 반하는 사고이다.

일본인의 해외 활약상을 보면 현재 일본의 위상이나 인구비에 비해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반대이다. 세계 인구비에 비해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인은 대단하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참 좋은 것은 우수한 사람은 국내에 남고 나쁜 사람은 해외에 나가는 것이다. 저는 현재 일본의 현황을 '인재의 노 리턴화현상'이라고 본다. 우수한 인재가 해외에 나가버리면 일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청색발광다이오드(LED)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카무라 슈지라는 분이 있다. 그는 이름 없는 지방대학 출신에 유명하지 않은 지방 기업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발명을 하게 됐다. 그러나 일본학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일본학계에서는 학문적인 업적 자체가 아니라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먼저 따졌다. 일본에는 아직도 그런 지방대학, 지방기업에서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다는 선입견이 있다.

그러나 나카무라씨가 이것을 미국에 가서 발표하자 많은 대학과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왔다. 그래서 학계와 기업에서 나카무라씨에게 당신 같은 우수한 인재는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물었다. 나카무라씨는 너무 적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1천만엔을 받는다고 부풀려 얘기했다. 그랬더니 미국사람들이 'academy slave'라며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

현재 그는 일본을 떠나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절대 일본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다. 우수한 인재 한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에 있어 우수한 인재가 해외에 나가 안 돌아온다는 것은 인구 한 두 명이 줄어드는 것에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우수한 인재가 안 들어오는 일본의 장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

미국이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참고가 될만하다. 90년대 미국의 불황을 극복한 것은 역시 실리콘밸리였고, 실리콘밸리의 주역들은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시다시피 인텔의 창업자인 앤디 그로브는 20세 때 헝가리에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왔다. 야후를 일으킨 제리 양은 10살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의 장점을 얘기한다면 역시 '기회의 나라'라는 것이 지금도 가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 경제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집적된 결과

물론 일본의 나쁜 점을 얘기한다고 해서 일본 장래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한국도 풍요로운 자원이 있어서 경제성장을 한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성실히 일해서 성장한 것이다. 꾸준히 일한 선조들의 힘이 축적된 것이 한일 양국이다. 선조들이 꾸준히 일했던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invisible asset)'이라고 한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의 일부가 특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랑할 만한 것은 'invisible asset'이다.

전후 일본경제를 이끈 창업자들 중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쓰시타를 창업한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소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도중에 집이 파산해서 상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혼다자동차의 혼다는 가난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마을의 공장에서 일했다. 마쓰시타나 혼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던 상점이나 공장의 장인들에게서 노하우를 배웠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양국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노후가 집적된 결과 지금의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의 리딩멤버

양국 연대해 새로운 아시아시대 열고 세계평화 이바지해야

런던 이코노미스트의 편집장인 빌 에모트는 일본에도 오래 머물렀는데, <해는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을 썼다. 그런데 그가 탁월한 점은 버블경제 이전에 <해는 저문다>라는 책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해는 다시 떠오른다>라는 책 마지막에서 "그간 15년 사이 일본은, 어떤 종류의 범아시아연합의 지도적인 멤버가 되어, 이것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미묘한 표현을 썼다. 이 표현에 의문이 생겨 원문을 봤다. 그런데 일본이 'the'가 아닌 'a'로 표현해 'the leading member'가 아닌 'a leading member'로 표현했다. 일본이 추락은 했지만 아직 '리딩멤버'에서 탈락은 안 했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럼 다른 리딩멤버는 누구인가? 확실히 한국은 들어있을 것이다. 그럼 양국은 어떤 역할이 있는가? 아시아의 경제성장이 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밀접한 역사관계가 있다. 중국은 우리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그러나 정치체제는 한일 양국과 다소 다르다. 또한 경제성장의 방식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빌 에모트의 표현에는 깊은 함의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를 보더라도 한중일 종교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렇게 전투적이지 않다. 때문에 일정한 조건만 구비된다면 한중일은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중국도 민주국가가 된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워지듯이 먼 장래에 중국과의 사회적 거리도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자 염원은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룩하면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人間)



마음의 근대화, 도덕적 근대화가 진정한 대한민국 선진화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2007년은 정치민주화, 근대경제성장, 사회적 다원성과 개방에 성공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을 지속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폭력적 막시즘과 환상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 사기극 선동과 폭력 앞에 대한민국이 공동화되고 해체되느냐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이 지난 1월 한 시민사회단체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인사말 중 일부다. 그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2007년이 '위대한 기회'인 동시에 '세계적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갈림길에 놓여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건전한 진보와 개혁을 주도하는 보수가 주류로 올라서면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고,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전면에 나서면 '세계적 절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편 김 이사장은 항일독립운동 사상 유일하게 성공했던 좌우합작 조직인 신간회의 '통합과 포용'의 정신을 대한민국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15일 항일독립단체대표, 독립운동가 유족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간회 80주년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갖기도 했다. 신간회 기념사업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한 그는 대한민국의 좌우논쟁, 보수·진보논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발전이라는 공통분모 위해서 거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대한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도 평화도 글로벌화도 대한민국 체제에서만 가능하다는 '진실'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다.

오랜 연륜을 통해 '안다'는 것과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김진현 이사장을 만나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 길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김진현 이사장

1936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명예경제학 박사, 광운대 명예공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경제연구원 대표, 동아일보 논설주간, 한국경제신문 회장, 문화일보 회장, 서울시립대 총장, 과학기술처 장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도 IT전략연구원 이사장, 한국무역협회 연구자문위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사장,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특히 장준하기념사업회 명예회장, 이봉창기념사업회 전 회장, 민세 안재홍기념사업회 회장, 재현의원유족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사회의 엘리트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란 책을 내셨는데요. 책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 천황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요.

<일본친구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945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과정을 종합 비교 분석한 연구서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근대화과정의 차이를 기독교, 정치민주화, 시민자유, 언론, 과학기술, 해외교포와 유학, 개방이라는 각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했죠. 근대화 전개의 차이로 인한 202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힘의 대등화, 수평화, 대칭화 가능성을 인구 자연조건 과학기술 해외네트워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힘의 변화 등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나카소네의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일관된 핵개발정책의 추적, 둘째는 맥아더의 광신적 기독교 신교의 처절한 실패와 Christian Pax Koreana를 꿈꾸는 한국기독교의 기적, 셋째는 일본보다 앞선 정치민주화, 시민자유, 개방, 넷째는 일본보다 30만이나 많은 이공계 대학생, 다섯째는 2000배 차이에서 8~4배까지 좁힌 한일 기술격차, 여섯째 일본보다 4만이나 많은 해외유학생 등 한일비교의 데이터, 통계, 해방 전후기 자료추적과 해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1945년 이후 한일근대화 종합비교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압과 타율만으로 변형되었던 일본예외주의, 일본식황주의, '일본주의 문제'를 '평화롭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외압과 타율의 불행이 오기 전에 천황이 직접 나서서 역(逆) 메이지 유신 '아키히토 선언'을 해야 합니다. 문화 경제의 기능적 교류만으로는 일본주의, 일본식 중화주의의 변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정부와 NGO들에게 일본천황을 향한 새 외교와 새 접근을 권고하고자 했습니다.

평소 일본통으로 알려진 이사장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일본통'이라는 말과 '일본전문가'라는 말은 다릅니다. 저는 'globalist'로서의 일본통이라고 할 수 있죠. 일본과 양자회담 또는 회의가 약 30회, 일본에서 열린 국제회의 또는 행사까지 합치면 60회 정도 돼요. 외국에서 열린 일본관계, 또는 일본인 참가회의는 80회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까지 한번도 시민혁명을 겪은 경험이 없어요. 일본 보수의 폐쇄주의, 특수주의, 일본식 중화주의는 야당, 지식인, 기업계에 의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근대화되어갈수록, 도시화되어갈수록, 젊은이로 세대 교체가 될수록 더욱 국수화되는 일본정치세력의 풍향계를 보세요. 한일수교 40주년 기념을 거창하게 하기로 양국정부가 합의하고도 양국의 해군함정이 조우하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풍과 같이 밀어닥치는 '히말라야권문제군', '중국어문제군'에 대처하려면 '한일공동의 집'이 꼭 필요합니다. 이 갈등해결의 출발점이 한일간의 역사정리이고, 이것은 일본 주류정치세력으로서 불가능하고 현실적 권위와 상징력을 지닌 일본천황이 나섬으로서 평화롭게 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에게 모두 불

행한 '힘'의 동원이거나 양국 모두의 최잔 내지 공멸이 됩니다.

2007년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 주요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해입니다. 먼저 다가올 대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2005년 12월 인간개발연구원 초찬모임에서 "위대한 기회, 세기적 절망-21세기 세계와 2006년 한국의 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었죠. 이번 대선은 '위대한 기회'를 승화시켜 대한민국 근대화 혁명의 성공을 세계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한민국 해체의 원년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진보와 개혁을 주도하는 보수가 주류가 되는 새 정치 구도를 찾게 되면 희망의 대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가짜 보수, 가짜 진보가 전면에서 발호(跋扈)한다면 절망의 대선이 되겠지요.

대북정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선언한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햇볕정책', 지금까지와 같은 '김정일 정권 지원정책'은 재평가하고, 북한의 확실하고 검증받는 핵 폐기를 최우선 정책으로 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한국이 북한 핵 폐기조치에 나서지 않는 한 한국과 북한 모두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배척,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대한민국은 안으로 이념갈등과 경제적 혼란, 밖으로는 발언권 외교력 약화로 21세기 동아시아 질서 개편기에 위치를 상실하고 존재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차원에서 북한의 대선에 대한 정치공세를 차단하고, 둘째, 북한동포에 대한 햇볕정책과 북한정권에 대한 외교정책을 확실히 구별하고, 셋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그리고 민간에서도 분야별 역할분담을 재정립, 재구성하여 대북정책의 체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세 인재흥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최근 신간회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계승할만한 신간회 정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 2월 15일 신간회 창간 79주년 기념식을 처음 가지면서 준비는 시작했습니다. 이상계, 안재홍, 한용운, 신채호, 김병로, 허헌, 홍명희, 이승복, 한기약 등 신간회 창립자 계열이 모두 참여했죠.

신간회 정신은 통합과 포용입니다. 신간회는 항일독립운동 사상 유일하게 성공했던 좌우합작운동이었고 조직이었습니다. 신간회에 참여한 우익 민족주의 진영과 좌익 사회주의 진영은 항일민족독립이라는 대의에 일치했을 뿐 아니라, 방식에서도 비타협, 비폭력, 기회주의 배격이라는 높은 도덕성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4만여 전국의 엘리트는 근대주의, 계몽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선구자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1500만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4만명이란 숫자는 대단한 거죠. 오늘날의 부패하고 안일함에 젖은 보수세력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근대화혁명을 부정하고 김정

일 족벌독재와 반(反)인간주의 북한에 정통성을 인정하는 가짜진보, 좌익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앞으로 신간회는 대한민국 정통성, 정체성 확장 발전과 이념, 체제갈등 문제를 푸는데 신간회 선구자들의 뜻과 얼을 재조명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연구와 토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사회에 '진보다 보수'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진영이 따로 갈 수는 없다는 건데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찾아야 할 합의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45년 이후 독립한 140개 가까운 비(非)서양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에 확실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정치민주화, 시민자유, 근대경제성장, 종교 사회 문화의 다양성, 교육 과학기술의 현대화, 개방과 국제교류의 기록은 모두 역사적, 통계적 진실이자 국제적 비교의 진실이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당성의 확장 발전 위에서 7500만 한민족의 힘, 발전, 행복, 즉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지향과 가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은 저절로 가짜 보수, 가짜 진보를 거르는 일도 될 겁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에 퍼져있는 7500만 한인(韓人) 한민족의 거점, 중심, 허브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체제와 능력으로 인해서 반기문, 백남준, 조수미, 김영훈, 박영석 등과 같은 인재도 나오는 겁니다. 통일도 한류도 평화도 글로벌 엘리트도 대한민국 체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진실에 대한 합의가 안 될까요. 독선과 폭력만이 이를 부정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세계화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이 근대화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세계의 절대적 기준과 비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의 절대적 기준에 비교해 보면 진보와 보수를 떠나 부족함도 많고 과오도 많은 게 사실이죠.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적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합리적 판단, 엄격한 기준을 적용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에 합의해야 '위대한 기회' 살릴 수 있어”



하지 않아요. 그저 적당히 하려고만 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회와 세기적 절망'의 갈림길에 놓여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난 연말 이사장님이 상임의장으로 계신 선진화국민회의에서 '선진한 국민신문'을 창간하셨는데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실 계획입니까.

선진화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비정부기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 하죠. 대한민국에서 반선진화, 반근대화쪽과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현재 선진화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교육선진화, 노동선진화, 정치선진화, 외교안보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창간한 '선진한국신문'은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국가리더십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진선동을 배격하고 진정한 철학을 채우는 신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설 수 있는 신문, 반선진화 세력을 적극 저지하는 신문, 이성과 감성, 지성이 통합되는 소프트웨어가 넘치는 신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신문이라는 편집방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개발·양성은 어느 조직에서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이사장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사회, 경제가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 즉, 노동, 자본, 자원, 토지를 모두 동원하고 보니 이제는 지식, 지력(知力), 인간자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식경제, 지식산업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됐죠. 그래서 모두가 지식산업, 지적자본창출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지식, 지력의 소유주로서의 인간을 넘어 사람 됨됨이, 인간성,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본력, 자원력, 지식력을 넘어 사회자본인 '인간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궁극에 이른 거죠. 인간개발연구원도 인적자본으로서의 인간을 넘어 인격, 인성으로서의 '인간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은 언론인, 학자, 장관 등 다양한 경험과 활동으로 우리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이사장님의 평소 지론이나 인생철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경험과 연륜을 거처서 터득했다고 할만한 교훈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끝내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생을 마감하기 십상일 겁니다. 단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착각하고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성찰, 겸손, 관용의 도덕적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도덕적 바탕 위에 즐기차고 치열한 교량(較量), 분석, 객관화에 노력할 때만이 진실에 다가가는 겁니다.

언론, 연구소, 대학, 과학기술을 다루는 것이 일생의 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진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진실에 다가가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배운 것은 큰 소득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위에서 보편적 윤리와 역사의 정의를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으며, 또한 남을 돕지는 못할망정 폐는 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겸손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여러모로 위기에 처해있다고들 합니다. 특히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언을 할만한 '사회적 원로'가 없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사회에 원로가 없다는 말은 우선 사회변화가 빨랐기 때문입니다. 원로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몇 세대를 거치다 보면 그 전에는 정당했던 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화 되면서 바뀌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한 세대 전의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를 평가할 때도 신중을 기해 당시 업적과 이후 그 업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균형있는 평가를 해야 합니다.

둘째는 근대화 과정에 있어 부패는 어느 조직, 어느 계층에서든 용인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사회의 원로문제가 심각한 것은 60년대 이후 지나치게 경제제일주의로 편향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기업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부패도 괜찮다는 의식이 너무나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모두가 잘 살아보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국민통합을 이루고 경제성장을 했지만 성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이 부패의 만연을 부른 겁니다.

우리사회는 부패문제에 대해 너무나 관대합니다. 우리가 근대화에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근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의 선진화운동이 경제합리주의로 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도덕선진화운동'이 맞는 말이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실현될 때 우리사회에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원로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과 정열 때문인가요. 늘 건강해 보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젊었을 때부터 매일 아침 등산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 자주 산에 오르지 못하고 대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집안에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 가족들과 대화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시대 사회적으로 활동했던 남성들은 가정적으로는 모두 희생자들입니다.

'公先私後', 늘 공이 우선이고 사적인 것은 나중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내와 그간 살아온 얘기나 삶에 관한 얘기들을 조용히 나눌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강사로 활동하시는 등 연구원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32주년이라는 큰 획을 긋고 이 땅의 리더십교육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만할 때가 바로 쇠퇴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성찰하고 끊임없이 혁신해야겠지요. 이제는 글로벌 엘리트 육성교육의 큰 프로젝트를 구성할 때라고 봅니다. 우선 아시아지역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연구원 교육 프로젝트에서 보편적인 것을 추리고 현지특색을 가미하여 호치민, 하노이, 방콕, 자카르타 등에 연구원의 리더십프로그램을 세일즈하는 거죠. 언어문제나 현지의 모임 등을 잘 분석한다면 가능한 접근법이 나올 거라 봅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사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CEO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와 해소법

정경연 정경연한의원 원장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사람도 없다. 스트레스의 경중(輕重)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산다. 그러나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절반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두 배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다.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사람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스스로 몇 배로 증폭시키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 장기간 지속되면 질병 유발

우리나라 사람들 건강 해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 푸는 것 문제 말초적 쾌락으로 스트레스 해소해서는 안돼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은 낙제점 수준이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방법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극적인 해소법인 '잠을 잔다'와 건강을 해치는 '술을 마신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TV시청, 컴퓨터 게임 등 건강에 안 좋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 '가족, 친구와의 대화', '기도나 묵상', '운동'이 각각 1~4위이고, 흡연이나 음주로 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풀어줘야 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책 사인회를 겸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다.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스트레스 정도는 놀랍게도 대부분이 중등도 이상의 심각한 수준이었고, 현재 스트레스 때문에 앓고 있는 질병도 한 사람이 동시에 4~5가지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현주소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도처에 깔려있다. 지나친 소음, 강렬한 빛, 불쾌한 냉난방 설비, 타인의 무례함, 타인과의 갈등, 팍 짜인 규칙, 형식적인 절차, 결혼, 이혼,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 직업의 상실, 승진, 정년퇴직, 아기의 탄생, 입학, 졸업, 가족간의 불화, 돈을 빌림, 과태료 통지서를 받음, 빌린 돈의 만기가 다가오는 등의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반면 과중한 스케줄, 불충분한 수면시간, 비판적인 자기생각, 자신을 과소평가, 비현실적인 기대감, 독선적인 소유욕, 경직된 사고방식, 완벽주의 성격 등의 내부적인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은 우리 몸은 곧바로 적의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상태로 비상가동 되는데, 맥박과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한다.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은 늘어나고 피부와 오장육부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며,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지방, 당 성분은 늘어난다. 이

런 비상 가동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드디어 몸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스트레스성 질병이다. 이 질병들은 흔히들 '신경성'이라는 머리말을 질병 앞에 달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두통, 소화불량, 위궤양, 과민성 대장후군, 각종 피부질환, 당뇨, 갑상선 질환, 불면증, 우울증, 감염성 질환, 탈모, 생리통, 무월경, 불임, 비만, 성기능 저하, 공황장애 등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들이다. 심장병의 75%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암과 중풍도 스트레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나게 하는 스트레스를 술이나 담배 또는 말초적인 쾌락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는 스트레스로 병들어 가는 몸을 더 죽이는 꼴이 되고 만다. 몸을 살리면서 스트레스를 절반으로 만들어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은 없을까?

CEO들에게 추천하는 긍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방법

※ 노트에 쓴다

머릿속에 뒤죽박죽 엉켜있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고 괜히 불안하고 집중이 안 될 때는 노트에 머릿속에 이리저리 떠다니는 생각들의 리스트를 작성해본다. 생각나는 대로 일단 한 단어씩 쪽 써 내려가 본다. 그리고 나서 혼자 해결할 일과 다른 사람과 의논할 일,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두고 기다려 봐야 할 일 등으로 제목들을 분류한다. 눈에 보이게 리스트를 직접 손으로 써보면 생각만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정리가 잘 되어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도 잡을 수 있다.

※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endorphin)이 생긴다. 엔돌핀이란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이라는 뜻이다. 모르핀은 식물에서 추출해서 만들어낸 강력한 진통제다. 이 모르핀보다 200배나 진통작용이 강한 물질이 우리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엔돌핀이라는 뇌내 마약물질이 바로 그것이다. 엔돌핀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세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 내게 되며 중독성도 없다. 또 신체를 안정시켜 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신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에게 엔돌핀이 나오는 때는 잠잘 때, 웃을 때, 사랑할 때, 감동 받았을 때, 그리고 운동할 때다. 엔돌핀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운동을 하면 자부심이 커져서 심리상태도 향상될 수 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외모도 좋아지기 때문이다. 순환기가 자극을 받고 근육 긴장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의 혈액 흐름이 원활해져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가 된다. 그 외에 몸의 균형과 자세가 좋아져서 더욱



들이 조화로우지면서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가 안정되어 감정조절이 쉬워진다.

❖ 취미생활을 한다

요리하는 일은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가 될 수 있다. 요리에 집중하는 시간 동안은 잡념이 생기기 힘들다. 요리하는 동안 뇌가 활성화되고, 기분전환도 된다. 그림을 그리는 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잡념을 없애는 묘한 힘이 있다. 춤을 추자.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춤이라면 즐거워하는 것을 흔히 본다. 살사, 벨리, 라틴, 스포츠, 재즈 댄스 등 다양한 춤 중에 흥미 있는 것을 배워보는 즐거움과 더불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간동안은 모든 것을 잊고 몰두할 수 있어서 엔돌핀을 솟게 한다. 식물을 기르는 작업도 좋다. 식물을 기르는 작업은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려주며, 매일매일 자라는 식물을 보고 가꾸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주말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는 일도 적당한 운동이 되며 일광욕도 되어 뇌를 활성화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므로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음악과 함께 한다

노래를 부르면 슬픔, 공포, 긴장감이 해소되고 몸과 마음의 상태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풀어진다.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좋은 음악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자아를 통합해서 정서적 균형을 유지시킨다. 녹음된 음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그리고 남의 연주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녹음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장점도 있다. 즉, 운동은 사람에게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최적의 방법이다.

❖ 걷는다

걷기는 뇌를 자극해서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엔돌핀과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을 증가시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높여준다. 걷기는 정신과 몸 모두를 조화롭게 하는 가장 인간적인 움직임으로, 정신적 안정이나 감정조절 등 우울증과 불안증상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 자신의 여건에 맞으면서 마음에 드는 시간에 늘 걸으면 생체리

❖ 잠시 떠난다

여행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부터 멀어져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주며, 즐거운 자극으로 뇌를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바닷가의 파도소리를 들으러 가도 좋다. 파도소리나 잔잔한 시냇물 소리의 자연음은 '자연 리듬의 효과'라고도 불리는 '1/파' 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들으면 신체의 생체리듬과 반응해서 심신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며 컨디션이 좋아진다. **人間**



정경연 원장

1968년 생으로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원F&B, 한국화장품, SEFI 퍼스널컬러연구소 한방전문 자문위원, 대한한방 해외의료봉사단(KOMSTA) 회원, 대한 한의침구학회 정회원, 대한 약침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동국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정경연한의원 원장으로 직장인 건강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제48회 밀양시 '밀양시민대학' 1월 26일(금)

새로운 천년을 향한 우리의 자세

서생현 반부패국민연대 고문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민선 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금까지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강해 매월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밀양시민대학'은 본원과 밀양시(시장 엄용수)가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

그램입니다. 현재 밀양시민대학은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맞은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에 힘입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과 밀양시는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밀양시의 지적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1월 26일 "새로운 천년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제48회 강연을 해주신 서생현 고문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부정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하지만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감증이 더 심각한 문제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정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정이 심각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전국에 16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지난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5명이 부정을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31%나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출범 4년이 다 돼 가는데, 그 동안 광역단체장 3명이 부정을 저질러 감옥에

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장·차관은 큰 책임을 지는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정권만 바뀌면 전 정권 하에서 장·차관을 했던 몇몇 사람이 부정에 연루돼 소환되는 게 우리 나라입니다. 그 동안 많은 정권이 바뀌어왔지만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이 부정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부정을 일삼으니 아랫사람들도 같이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실정이니 국가 청렴도가 국제적으로도 하위권입니다. 163개국의 청렴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이 42위입니다. 10점 만점에 5.1을 받았어요. 싱가포르의 경우 9.4점을 받아 세계 5~6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홍콩이나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

서생현 고문

1935년 생으로 육사를 졸업하고 연세대 고위정책결정과정,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수료했다. 제2군사령부 통신참모, 육군본부 통신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 통신국장 등을 역임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했다. 이후 한국항공화물협회 이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심해저자원개발협의회 회장, 한국마사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반부패국민연대 고문, 부패방지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거의 불감증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해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수억 원씩의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도 놀라지 않습니다. 불감증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국민들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81년도에 싱가포르 국토 개발부 장관이 뇌물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국유지를 분양하면서 특혜를 준 거죠. 혐의가 발각되자 장관이 싱가포르 같이 깨끗한 나라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이력을 갖고 어떻게 살겠는가 하고는 자살해버렸습니다. 법의 심판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과 비리를 고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 계층간 갈등의 골이 깊은데, 이것도 부정을 뿌리뽑지 못하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이미지도 실추되겠죠.

부정 근절하지 못하면 경제발전 발목 잡을 수 있어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정을 뿌리뽑지 못하면 지금까지 키워온 우리 경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국민소득 1만불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지금 12년째에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 2만불, 3만불도 돌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습니다. 싱가포르가 1만불에서 2만불 가는데 5년 걸렸습니다. 일본은 6년 걸렸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만불을 돌파하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은 부정과 비리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의 아르헨티나입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주변 적대국이 없어 군사비가 안 든다는 점,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등 경제가 발전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러나 부패가 아주 심하게 결국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운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아르헨티나 국가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2.9점으로 세계 93위입니다. 이런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죠. 이것은 아르헨티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하면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은 수십 년 간 사회 속에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야에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가정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2세대들이 성장해 사회에 진출하면 반드시 정직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가정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 일에 대한 실수로 지적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사소한 것이라도 비리에 연루되는 일은 부모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은 하지 않고 늘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니 자녀들 공부는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죠. 또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합니다. 승진도 빠르죠. 그래서 높은 자리까지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면 별 탈없이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비리의 마수가 팔을 뻗으면 걸려들 가능성이 높아요. 내 자식이 비록 학문적으로 남보다 못하고 좋지 않은 직장에 높은 자리까지 오르지 못했더라도 참으로 정직한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남편이 공무원인 분들이 계실텐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에게 시집온 것은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들 앞에서 경제적으로 자극적인 얘기들을 하다보면 남편들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남편들 공직생활 하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렇더라도 부인들이 높이 올라간 것 같이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남편이 높은 자리에 가면 가족들도 덩달아 우쭐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은 남편들 직장생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회분위기가 변해야 합니다. 부정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관심을 저버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부정은 우리사회를 뿌리째 썩게 하는 악병 중의 악병입니다.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소액의 부정이라도 그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이 있어야만 부정을 뿌리뽑을 수 있지 고위층, 고액의 부정만 엄하게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부정에 연루된 친인척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뇌물을 받을 뜻이 있다는 것만 확인돼도 처벌합니다. 또 부패행위조사국이라는 기관에서 공무원들의 재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형편에 맞지 않게 부를 가진 공무원이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정한 재산으로 간주해 모두 몰수해버립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마약, 밀수, 탈세를 부정과 같이 취급해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셋째는 공직기관이 바로 서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정은 공직기관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잘 해야 합니다. 일어난 한 번 실수해도 배워서 잘하면 되지만 작은 것이라도 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엄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을 평소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런 기관에서는 비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기관의 기관장을 역임하면서 부정부패에 관한 교육은 직접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기관에서는 단 한 건의 비리사건도 없었는데, 근본적으로 직원들이 정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한 의지의 교육도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해요.

공직기관에서는 수위계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위계약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수위계약에는 융통성이 많습니다. 융통성이 많다는 것은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또 공직에 있으면서 업자를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금물입니다. 현장을 갈 때도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돼요.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직사회를 보면 그 기관을 감독하고 통제하는 상부기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대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고쳐야 합니다. 자비를 들여 간단한 점심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만

저녁시간 '접대'라는 이름의 대접이라면 곤란하겠죠. 이견 나도 어디 하루 기관에 가서 그렇게 접대 받겠다는 것으로 이때부터 비리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사람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 분과 내가 가깝게 지내면 반드시 내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신경을 쓰겠죠. 과일도 바꾸니로 들고 가던 것이 박스로 커지고 고기도 텅어리가 커집니다. 돈도 가져가겠죠. 여기 서부터 비리가 시작되는데, 이견 뒷사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에 교육을 합니다. 어느 기관을 가든지 제가 하는 교육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집에 어떤 사람도 찾아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직원이든 그 가족이든 찾아온다면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직이든 뒷사람이 가장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 회사의 사장인 동시에 사장사원인데, 내가 전사원들 중에서 가장 모범사원이 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생기는데, 그 중 가장 기쁜 일은 뒷사람이 칭찬해줄 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칭찬 받을 일을 하면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칭찬 받은 직원은 더 열심히 일합니다.

또 조직생활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건 진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기관에서 상위 직급의 진급자는 사령식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지만 말단직원의 진급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진급 발표만 하고 말죠. 이럴 때 적당한 의식행사를 해주면 조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승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진식에는 꼭 그 가족들, 특히 사모님들을 모십니다. 그리고 회사의 인사방침 하에서 열심히 일해 진급했음을 가족들에게 알려줍니다. 행사가 끝나면 사모님들에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꼭 남편들이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 남편 책상에 한 번 앉아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작은 파티라도 열라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직장을 인정하게 되고, 남편에게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가 망하겠습니까. 이런 인사방침을 활용해야 하는데, 학연, 지연, 혈연 다 따지고 인사를 하니까 조직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공직자들은 조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공직자들은 약점이 없어야 합니다. 공직자들도 인간인데 왜 약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공직자의 약점은 인사문제와 금전문제죠. 적어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약점이 생기면 소신껏 일하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둘째는 어떤 보직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국가의 일입니다. 국가의 일을 낮잠 자면서 하는 나라는 주저앉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애국자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거죠. 중동의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은 인구가 6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 작은 나라가 주위의 대국들 사이에서 땡땡거리며 살 수 있는 것은 국민들 가슴속에

애국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강한 의지와 노력만이 부정부패 없앨 수 있어

제 공직생활 50여 년을 뒤돌아보면 부정과 전횡을 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설움도 당하고 요즘 말로 '왕따'도 당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을 도와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마사회 회장으로 내정됐을 때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의 기사 제목이 '마사회가 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목을 보고 몹시 불쾌했죠. 부임하고 마침 그 기사를 만날 일이 있어서 기사 제목을 잘못 붙인 것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하는 말이 "회장님이 얼마나 청렴결백하다고 소문이 났습니까? 부임하시면 대개혁을 하실 텐데, 개혁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라는 겁니다. 우리 언론도 이제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협조하고 도와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번은 비서실장이 와서는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또 하나 변화가 생겼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어디의 '후원의 밤' 행사 초대장이 끝도 없이 들어왔는데, 제가 부임하면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보낼 수가 없죠. 그런 모임에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한 두 곳 정도라면 제 사비를 내서라도 가겠지만 수백 명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회사 공금을 쓰겠습니까. 이런 제 뜻을 알고 정치하는 친구들이 저에게는 일이나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초대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제 경험상 부정을 없애는 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부정을 없애는 일에는 책 한 권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예산도 시간도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 부정을 없애겠다는 각급 기관장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을 없애겠다는 각고의 노력과 스스로의 모범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마사회 회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갈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아내 얼굴을 보니 참 많이 늙었어요. 고왔던 사람인데, 저와 결혼하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단 한번도 아내를 제 차에 태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 병원을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해요.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늙어버렸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우리가 결혼한지 40년이 다 되네요. 당신하고 살아봤더니 당신이란 사람 참 청렴결백에 대해서는 국보급이에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어요.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과 표창을 받아봤지만 그 어떤 상보다 아내의 한 마디가 저에게는 더욱 값지고 소중한 훈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공직을 떠나겠지만 공직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날 모두가 가족으로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게 생활해줘서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人間**

우리는 어떠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는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1992년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제1권이 출간된 이래 2006년 '로마 세계의 종언' 제15권을 종간함으로써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5년의 기나긴 대장정이 끝났다. 한길사는 금년에 제15권 번역판을 완간하고 우리 인간개발연구원과 '로마스쿨' 등 로마인 이야기 리더십아카데미의 야심찬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시인 괴테는 '당신이 만약 로마사를 읽게되면 황제가 된 느낌을 가지고 읽어라'고 했지만 로마인 이야기 제15권이 출간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는 250만 권 이상이 팔릴 정도로 일본에서보다 인기가 많았다. 1000년 로마사를 이끌어 온 로마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훌륭한 리더십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이 끝난 후 한마디 한마디의 말로 종전을 선언하며 남긴 카이사르의 역사적인 즉석연설이 말해주고 있듯이 1000년 로마사를 빛내고 있는 카이사르의 영웅적인 리더십은 찬양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를 저술하기 위해 이탈리아 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으면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리더십 자질 5가지가 열거돼있음을 통찰했다. 첫째, 지력(知力), 둘째, 설득력(說得力), 셋째, 육체적(肉體的) 지구력, 넷째, 자제력(自制力), 다섯째, 의지 관철력이다. 카이사르만이 로마사를 이끌어온 영웅적 리더 중에서 이상의 5가지 리더십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시오노 나나미는 강조한다.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이룩한 페리클레스가 카이사르가 누렸던 5가지 리더십 자질을 갖추고 그리스의 찬란한 황금시대를 이룩했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귀에 거슬릴 만큼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선 주자들의 리더십의 우려스러움이 필자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찢어지는 소리가 가슴 아프게 느껴지면서 2007년 대선이 평화와 번영과 행복 그리고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걱정케 한다.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하는 산모의 산고(産苦)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감감한 밤이 지나야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듯이 한국 정치의 혼돈과 감감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탄생케 하는 위대한 국민의 선택을 기원해 본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된다.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맨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에 지배받는 것보다는 자기를 둘러싼 이웃의 행복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왕도임을 성인들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나의 꿈에 의해 나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선택들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떠한 자질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행복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2007년을 그러한 인물을 선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한해로 정하고 자기보다는 우리 국민과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도록 하자.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면 행복한 삶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Our Daily Bread(오늘의 양식)의 고정 필자 중 한사람인 Richard De Haan이 제시한 10가지 원칙을 정리해 본다.

첫째, 무엇인가 값진 것을 거저 주라.

둘째, 친절을 베풀며 살라라.

셋째, 항상 감사하며 살라라.

넷째, 정력적으로 힘차게 일하라.

다섯째, 자기보다 나이 드신 분을 찾아 뵙고 그들의 인생경험으로부터 더 무엇인가 배우도록 하라.

여섯째, 어린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얼굴을 유심히 보고 감탄해 보라.

일곱째, 자주 자주 웃으라. 웃음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윤희물이다.

여덟째, 천하의 원리가 되신 창조주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라라.

아홉째,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애계획을 세우라. 그리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열째, 오늘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라.

진실하고 선하고 거룩하며 전지전능한 창조주를 믿고 복종하며 살면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기 속에 위대한 신(神)이 내재해있음을 믿고 신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人間**



웃음 치료를 통한 편경영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

3년 전 대학의 교수라는 명예로운 직업을 그만두고 웃음치료와 편경영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 국민들의 배꼽이 빠지도록 재미있게 강연하다보니 2007년 대한민국CEO 대상, 2007년 명강사 선정, 2006년 올해를 빛낸 인물 20인 선정 등 상을 10개나 받았다. 그저 큰 소리로 웃었을 뿐인데 너무나 과분한 상이다.

편경영, 새로운 경영트렌드로 자리 잡아

웃음은 공장 없이, 원료 없이 공장을 돌리는 애국기업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시대 최고의 트렌드다. 유명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표정이 밝거나 늘 웃는 인상이다. 최근 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직원들이 일을 잘 한다고 한다. 이에 경영자들도 유머나 웃기는 직원들을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외국 같은 경우는 면접시 면접관을 웃겨보라는 테스트가 많다.

'Fun'은 유머, 장난, 놀이, 재미라는 뜻인데 개인, 가정, 직장에서 사용하기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웃음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편'이라 말할 수 있다. 개인으로는 고정된 일상관념을 타파하고 친근감, 사회성, 창의력 발달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표현력 향상과 커뮤니케이션 및 스킵십 향상을 위해서, 직장에서는 긴장을 해소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집중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편경영(management by fun)은 필요하다.

편경영은 즐거운 생활로서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경영까지 스며들어야 하는 최상의 마음경영이다. 감성이 풍부한 개인과 기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편경영은 직원들이 편리더십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음으로써 직장 내 활기와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이나 국내에서도 편경영을 실천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 90년대 초부터 붐이 일기 시작하여 편경영이 유럽, 아시아까지 확산되면서 새로운 경영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편(fun)하게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한가지 일에 미치며 몰입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맡은 일에 미치도록 몰입한다. 재능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 가고, 노력하는 사

람은 즐기는 사람 못 따라 가고, 즐기는 사람은 미친 사람 못 따라 간다.

웃음은 돈 안 드는 만병통치약

나는 슈바이처 박사처럼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프리카에는 못 가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싶다는 생각에서 사회복지사로 서울과 성남 등의 빈민촌에서 8년간 일했다. 당시는 공동화장실과 공동수돗물을 사용하던 시절이었다. 생활비도 안 되는 사회복지사를 하면서 야학을 하여 대학교수가 되었다. 그렇게 5년간 교수를 했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교수보다는 더 보람있는 웃음의 메신저가 되고자 그만두었다.

웃음치료를 만든 계기도 돈 안들이고 장소, 대상, 도구 등의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병도 치료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다. 웃음치료를 만들고, 웃음치료사라는 자격증도 만들었는데, '웃음치료사 1호'로서 요즈음 매일 방송, 신문사, 잡지사 인터뷰 에다가, 하루 두 세 건의 웃음특강을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웃음, 웃음치료, 웃음리더십, 편경영 열풍에 빠져있다. 그야말로 웃음이 대표브랜드, 메가트렌드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애국하는 길은 특별하지 않다. 웃음은 원료 없이 공장을 돌리며, 의뢰비도 30% 절감할 수 있다. 웃음은 돈이 안 드는 만병통치약이다.

웃음치료사란 개인에게는 몸과 마음, 정신, 환경의 역기능을 웃음으로 치료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병리현상을, 가족과 종교에게는 행복과 평안을, 학교에게는 수업집중력 향상과 편교육 실천을 위해서, 기업에게는 편경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15% 올리면 생산성이 40%가 향상된다는 원칙을, 병원과 복지시설에서는 예방과 치료사로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웃으면 면역력 증가해 건강에 도움 웃음치료로 장수 꿈꿀 수 있어

80세 어르신의 인생을 회고하여 보았더니 잠 26년, 일 21년, 식사 6년, 기다림 6년이였다. 그런데 웃는데 시간을 보낸 것은 겨우 10일(일 30초 가정, 80년간)뿐이었다. 최근 젊은 청년들의 정자수가 30% 감소하고, 10명중 4명은 비정상적인 정자이고, 처녀들이 조기 폐경을 한다고 보도된

한광일 원장

1962년 생으로 연세대 석사, 서울대 박사수료, 미국 ECU 박사를 마쳤다. 국내 최초 웃음치료사 자격증 창시자로 방송,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편경영, 웃음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연세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서일대 초빙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체의학 전문의로서 (사)국제웃음치료협회 회장, 한국웃음센터 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바 있다. 이것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면역체계의 이상 때문에 그런 것인데, 웃으면 면역력이 쑥쑥 올라간다. 역설적으로 찰리 채플린은 80세에도 아기를 낳았다. 옛날 우리 임금들은 웃음내시를 두었다고 한다. 우리가 화낼 때 나오는 날숨 1시간을 농축했더니 노랗게 변했고, 그것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약 '코티솔'로 변한다고 영국에서 밝혀졌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병은 기(氣)가 소통되지 않아 병이 되고 통증도 기가 막히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병을 치료할 때 '먼저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뜸을 떼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약을 써서 안되면 칼을 쓰고 칼로 안되면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오장육부와 온몸으로 웃는 웃음은 뜸과 같으며, 불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따라서 몸도 좋아진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약은 면역력'이라고 했다. 우리의 질병 중 90%는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하루에 1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 그러나 웃으면 백혈구가 증가하는데 백혈구는 면역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백혈구 속에 NK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 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즉, 논개세포라고 할 수 있다.

크게 한 번 15초만 박장대소해도 최하 200만 원어치의 엔돌핀, 도파민 등이 나온다. 1일 15초만 크게 웃어도 2일을 더 산다. 성인들이 1일 7번 웃는데 반해 아이들은 400번을 웃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래 사는 것일까?(하하하) 억지웃음도 90%의 효과가 있다.

박장대소와 요절복통으로 웃으면 650개 근육, 얼굴근육 80개, 206개의 뼈가 움직이며 에어로빅을 5분 동안 하는 것과 같다. 웃으면 산소공급이 2배로 증가하여 신체 등이 시원해진다. 또한 즐거운 활동이 기억력에 좋다는 임상결과도 있다. 웃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솟구치고, 늘 긍정적인 상상을 지속할 수 있다. 본 센터와 방송사의 실험결과, 웃고 있는 동안에는 10~20%의 힘이 증가, 생체나이가 6~7년 줄어들고, 유연성이 10% 증가하였다.

웃음에 관한 국제학술대회가 98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독일인 정신과 의사인 미하엘 티체 박사는 웃음이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체계와 소화기관을 안정시킨다고 했다. 그 이유는 웃을 때 통증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혼자 웃을 때보다 여럿이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가 있다. 잘 웃으면 8년을 더 살 수 있으며, 늘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이면 6년을 회춘한다고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6.9년(05년 기준) 오래 사는 이유는 자주 웃기 때문이다. 얼굴이 굳어있거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 수명이 짧다. 서양속담에 '웃음은 내면의 조깅이다'라는 말이 있다. 웃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묘약이며 명약이라 말한다. 1백년 전에는 새의 깃털로 환자를 간지럼 태워 치료했다. 아무리 '명'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은 2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이러한 대체의학, 대안의학,

통합의학이라고 할 수 있는 웃음치료를 활용하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긍정적인 사고로 웃자, 웃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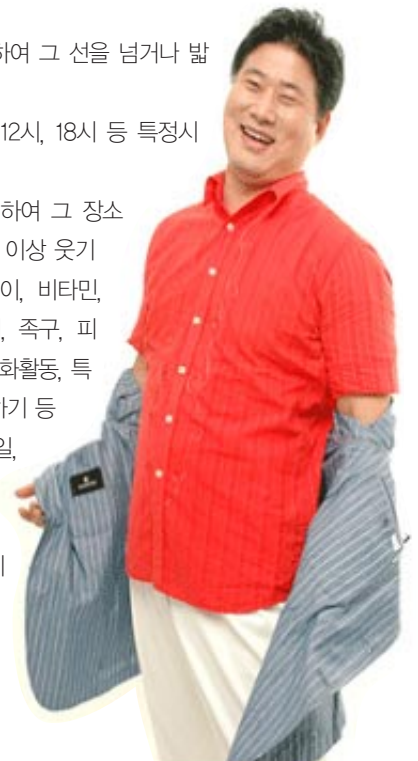
미국에서 10년간 100세 이상 노인들의 장수비결을 연구한 결과 3가지로 판명되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 신앙심, 봉사정신이었다. "알래스카에서 냉장고, 감기약, 수영복을, 의상에 전혀 관심없는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팬티, 브래지어, 양말, 신발을, 신혼부부에게 납골묘를, 노인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팔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고'이다. '나는 이탈리아를 보았지만 알프스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나폴레옹처럼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목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끝으로 독자들에게 이 말을 주고 싶다. '내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화장법이며, 웃는 사람에게는 밤에도 해가 뜨고,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자,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 우리에게는 열등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장점을 찾아 감사하자. 지금부터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신뢰하자. 웃음꽃이 사방팔방에서 피게 하고, '하하하호호호' 소리로 대한민국을 진동하게 하자. **人間**

박장대소 7대 운동 (가정, 직장, 학교)

- **웃음 bow** - 4단계 인사법. 1단계(안녕하세요), 2단계(약수), 3단계(하하하), 4단계(칭찬)
- **웃음 line** - 웃음 라인을 지정하여 그 선을 넘거나 밟을 때마다 10초간 웃기
- **웃음 time** - 하루 세 번 9시, 12시, 18시 등 특정시간을 정하여 전체가 웃기
- **웃음 zone** - 웃음지역을 선정하여 그 장소에서 머물거나 통과할 때 20초 이상 웃기
- **웃음 day** - 맵시데이, 과일데이, 비타민, 피자, 아이스크림, 사다리 타기, 족구, 피구, 문화, 안마, 사우나, 등산, 문화활동, 특산물시식, 회의시간 유머, 웃기하기 등
- **웃음칭찬 mail** - 핸드폰, 이메일, 카드, 칠판, 홈페이지 게시판
- **웃음 leader** - 1주간, 1개월, 1년간 가장 많이 웃는 직원에게 펀리더, 킹, 퀸 선정, 왕관수여



회원 & 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정문술(미래산업 고문)** 회원은 지난 2월 2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KAIST 개교 이래 처음으로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정문술 고문과 함께 이종문 美 암벡스벤처그룹 회장, 닐 파팔라도 美 메디테크社 회장, 박병준 부로 베리타스社 회장이 명예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들은 자수성가한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기부문화에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문술 고문은 300억원을 기부해 'KAIST 정문술 빌딩'을 세웠다.

•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은** 서울대 경영대 2006학년도 최고경영자과정(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2월 6일 롯데호텔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 **코리아나화장박물관(관장 유상옥)**의 유승희 부관장은 2006년도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행사 중 해외에 한국문화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유 부관장은 한국의 화장문화 전시를 성공리에 개최해 한국문화를 프랑스에 널리 알렸다.

•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두바이의 상상력과 감성을 배우기 위해 지난 2월6일~8일까지 12개 계열사 사장단 17명을 이끌고 7성급 호텔인 부르즈 알 아랍 호텔에서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 **교보문고(대표 권경현)**가 발행하는 독서정보지 <사람과 책>은 2007년 신년호 기획특집으로 '도전하는 당신께 성공법을 알려드릴까요?'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 분야 6명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책을 선정해 발표했다.

• **한국아쿠르트(대표 김순무)**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의 불우이웃들에게 온정을 담은 사랑의 떡국을 나누는 행사를 지난 2월 13일~14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떡국용 흰떡을 비롯하여 젓갈, 단팥죽, 사골스프 등으로 구성된 선물 박스를 아쿠르트 아줌마들이 3만5000여명의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했다.

• **정경연(정경연한의원 원장)** 회원은 <20대부터 시작하는 스트레스 제로기술>이란 제목의 도서를 지난달 발간하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저자사인회 및 BOOK이벤트' 행사를 가졌다.

• **대교(대표 송희용)**는 여성신문사가 주최하는 '2007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에서 학습지 부문과 중국어학습프로그램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 학부모 500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평가단의 브랜드 신뢰도 직접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브랜드에만 상을 수여하고 있다.

• **조천제(한국블랜차드컨설팅그룹 회장)** 회원은 가난한 열두 제자를 빛나는 리더로 키운 예수가 전하는 위대한 리더십의 4가지 원칙에 대하여 세계적인 리더십의 저자 켄 블랜차드와 필 하지스가 공동 저술한 <예수는 어떻게 12 제자를 위대한 리더로 키웠는가> (21세기북스)를 새롭게 번역 발간했다.



• **홍성원 전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은** 2월 26일부로 **현대H&S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 변경후 연락처 >
TEL. 02-3014-2200 / FAX.02-3014-2205
주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13-16 4층

■ 소모임 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 총무 고지석)**은 지난 2월 26일 제246차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 **다락회(회장 박세직 / 총무 우창욱)**는 제130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 시 ; 3월 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서울클럽(장충동 T. 02-2238-6493)
- 연 사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 **인목회(회장 김정배 / 총무 한종덕)**는 지난 2월 23일 차기 임원 선임을 포함한 정기총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정기모임에서는 인목회 2007년 신임 회장으로 **장찬기(해동재단 인천실버타운 회장)** 회원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

• **YCF(회장 최우영 / 총무 황진수)**는 겨울동안 움추렸던 어깨를 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러 청계산으로 산행을 갑니다. 산행 후 뒤 풀이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임에 꼭 참석하셔서 회원님들과 안부인사도 묻고 즐거운 산행도 하시면서 뜻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 시 : 3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청계산 삼거리 느티나무 밑

■ 신규회원



김동현 한무개발(주) 대표이사(법인회원)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8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 전 화 : 02-559-7017
- 팩 스 : 02-559-7088
- 업 종 : 호텔
- 추천인 : 양병무 본원 원장



강동훈 대한투자개발 대표(개인회원)

- 주 소 : 김포시 풍무동 532-3
프라임빌프라자 109호
- 전 화 : 031-988-9000
- 팩 스 : 02-988-4940
- 업 종 : 부동산개발
- 추천인 : 이시원 (주)부천 사장

****추천해주신 회원님과 가입하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연구원 소식

• 한중 경제무역교류회 4월 개최

중국 길림성과 본원은 오는 4월 서울에서 '중국길림성-한국간 경제무역교류 및 오찬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사, 각계 기업 등에서 400여명이 참가하게 될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과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더 많은 기업에게 길림성의 투자환경을 소개하여 양국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길림성에서 韓長賦 성장, 馬明 상무청장, 李錦斌 부성장 등이 방한하며, 닝푸 쿠이 주한 중국대사,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본원은 지난 2004년부터 王雲坤 길림성 당서기, 徐健一 길림시장 등을 초청해 한중경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양국의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같다.

- 아 래 -

- 행사명 : 중국 길림성-한국간 경제무역교류 및 오찬회
- 주 관 :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 일 시 : 4월 6일(금) 10:30~13:00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 조각가 이상길 작품전시

이상길 국민대 미술학부 교수께서 이번 창립32주년을 축하하며 작품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이상길 교수는 서울대 조소과와 일본 다마대학 미술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과 미국 프리먼재단의 아시아 작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창립기념세미나에 전시된 작품들은 우주와의 교감, 열린소통 등의 테마를 조형언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창립기념세미나 축하행사로 행사장에 작품들을 전시하여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 2007년 인간개발연구원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본원은 지난 2월 13일(화) 롯데호텔 36층 피코크 룸에서 2006년 사업결과와 2007년 사업계획(안)의 보고와 결의에 대한 정기이사회를 가졌으며 통과된 안건으로 2월 22일(목)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에서 2007년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 회원친선행사 남이섬 방문

동화나라로 가볼까? 노래의 섬 나미나라 첫돌!

지난 2월 15일 1490회 경영자연구회 연사로 강연을 해주신 남이섬 강우현 사장의 초청으로 3월 1일(목) 남이섬에서 나미나라공화국 1주년 기념을 겸하여 회원친선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부부동반 하시어 회원간 친교와 가족나들이를 겸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지자체 소식

• 서울 강서구청 '강서지식비타민강좌' 개설



서울시 강서구청(구청장 김도현)과 본원은 공직자와 각 단체지도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계발과 지방자치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강서지식비타민강좌'를 개설했다. 3월 15일(목) 서상록 前 삼미그룹 부회장의 "21세기 변해야 산다"를 주제로 개강강연을 진행할 예정인 강서지식비타민강좌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매주 1회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성원교역(주)	김창송 회장	3월1일
상천에덴스포츠타운	김창호 대표이사	3월1일
순환기획인쇄	유선찬 대표이사	3월1일
(주)제이에스엔지니어링	정창현 사장	3월3일
한마음특허사무소	구교근 소장	3월5일
한국씨름연맹	김재기 회장	3월10일
중앙파이낸스(주)	이재욱 대표이사	3월15일
지원실업	김병수 회장	3월16일
협운해운(주)	마상근 회장	3월19일
유진기업(주)	유재필 회장	3월22일
교차로(주)	김향순 회장	3월23일
(주)일삼	정우철 사장	3월25일
(주)코스틸	박재천 회장	3월30일
유한김벌리(주)	문국현 대표이사	3월30일

중동전문 특과원과 함께하는

‘세계의 허브’ 두바이 창조경영 시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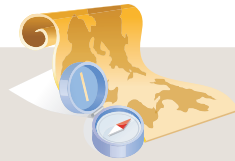


‘두바이를 보기 전에 창조경영을 논하지 말라’. 두바이를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말입니다. 대통령, 총리, 서울시장, 삼성그룹, LG그룹 등 정재계 지도자들 역시 창조경영에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두바이의 기적이라 할까요? ‘상상력의 제국’을 지휘하는 지도자 셰이크 무하메드의 통찰력과 창의적인 리더십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실현해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허브에서 세계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두바이의 기적을 체험하며, 어려운 경제불황을 헤쳐나갈 새로운 돌파구를 생각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이루어낼지를 계획하는 창조적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찰은 특별히 이틀간 서정민 중앙일보 중동 전문기자, 카이로 특과원과 함께 현지의 다양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참가하시는 분들에게는 강사의 저서 “두바이 - 무한 상상력과 창조적 리더십” 도서를 증정해 드립니다.

여행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욱 소중한합니다. CEO들이 창조경영의 지혜를 나누는 이 프로그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가 바랍니다.



- 연수일정 : 2007년 3월 23일(금) ~ 3월 28일(수) / 4박 6일
- 연수지역 :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 주 최 : 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참가대상 : 기업체 CEO 및 임원, 자치단체장, 전문직업인 외
- 참가비용 : 회원사 3,500,000원/1인 , 비회원사 3,6500,000원/1인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전일정 식사비, 전일정 입장료 외 일체/2인1실 기준)
- 참가비 입금계좌 (예금주 : 우리 132-055539-13-502 사단법인 한국인간개발연구원)
- 신청방법 : FAX. 2203-1974 / E-mail : ssj@khdi.or.kr (참가신청서 작성 후 발송)
- 신청마감 : 2007년 3월 9일 (금)까지 (선착순 30명 마감)
- 신청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 대리 Tel : 2203-3500



시찰 상세일정표

DATA	PLACE	TIME	ITINERARY	MEAL
제01일 3/23 (금)	인천	23:3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기 내 투숙 -	
제02일 3/24 (토)	두바이	05:25 06:30 08:00 12:00 13:00 18:00	<p>두바이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 가이드 미팅 후 조식 및 호텔로 이동하여 휴식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하는 현대화의 두바이 시찰 오찬 * 두바이의 테헤란로 Sheikh Zayed Road * 현대화된 전통시장 Souk at Madinat Jumeira * 클러스터 단지 Media City, Internet City * 엔터테인먼트 단지 Dubi Marina</p> <p>팜 아일랜드 시찰 및 두바이 마리나 프로젝트 본사 방문 환영만찬 후 호텔 투숙 HOTEL : TAJ PALACE CLASS</p>	 <p>[팜 아일랜드 리조트]</p> <p>조: 현지식 중: 현지식 석: 한 식</p>
제03일 3/25 (일)	두바이	08:00 12:00 15:30 18:00	<p>호텔 조식 후 오전 공식 일정 3대 디벨로퍼 Dubai Holdings의 'Jumeira Beach Residence' 프로젝트 시찰 현재 두바이 최고급 대형 레지던스 바스타키아 나이트 레스토랑에서 전통 아랍식 중식 4WD차량의 사막 사파리 여행, 유네스코 보호유산으로 지정된 RED사막에서 석양을 감상 한 후 현지 베두인식 텐트촌으로 이동하여 아라비안 문화체험, 벨리댄스와 헤나 문신그리기, 물담배(시사) 등 체험 바비큐 만찬 후 호텔 투숙 HOTEL : TAJ PALACE CLASS</p>	 <p>[사막 사파리 투어]</p> <p>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B.B.Q</p>
제04일 3/26 (월)	두바이	08:00 09:00 12:00 16:00 18:00	<p>호텔 조식 후 오전 공식 일정 에미레이츠몰(스키두바이) 쇼핑센터에서 자유쇼핑 한국건설업체가 시공한 주요건물탐방 * 쌍용건설에서 시공한 'Emirates Tower' * 삼성건설에서 시공중인 세계 최고의 빌딩 'Burj Dubai'</p> <p>세계 유일 7성급 호텔 Burj Al Arab 내부시설 견학 및 체험 - 환송만찬 - Burj Al Arab 내 AQUARIUM SEAFOOD RESTAURANT HOTEL : TAJ PALACE CLASS</p>	 <p>[버즈 두바이 예상도]</p> <p>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p>
제01일 3/27 (화)	두바이	전 일 17:30	<p>두바이 최고의 개발회사 'Nakheel Office' 방문 및 시찰 "중계무역의 거점" 제벨알리 항과 제벨알리 자유무역지대 시찰 중식 후 오후 문화시찰 대형 쇼핑몰인 "에메레이트 몰" 및 인공 실내스키장 "스키 두바이"</p> <p>두바이 공항으로 이동 두바이 공항 출발</p>	 <p>[스키 두바이 내부]</p> <p>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p>
제01일 3/28 (수)	인천	07:20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기 내 투숙 -	<p>조: 기내식 중: 기내식</p>

★ 상기 일정은 항공편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독서경영 "10분 독서운동"

지식사회가 본격화되면서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필수로 요구됨에 따라 학습하는 조직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미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지난 32년 동안 조찬경영자연구회와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주1회 또는 월1~2회 저명강사의 강의와 함께 평생학습의 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올해에는 "독서아카데미를 통한 독서경영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개인과 조직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책 읽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책이야말로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독서량이 한달에 한권에 불과하여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서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에서 보면 한권도 안 읽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이제 독서량이 국력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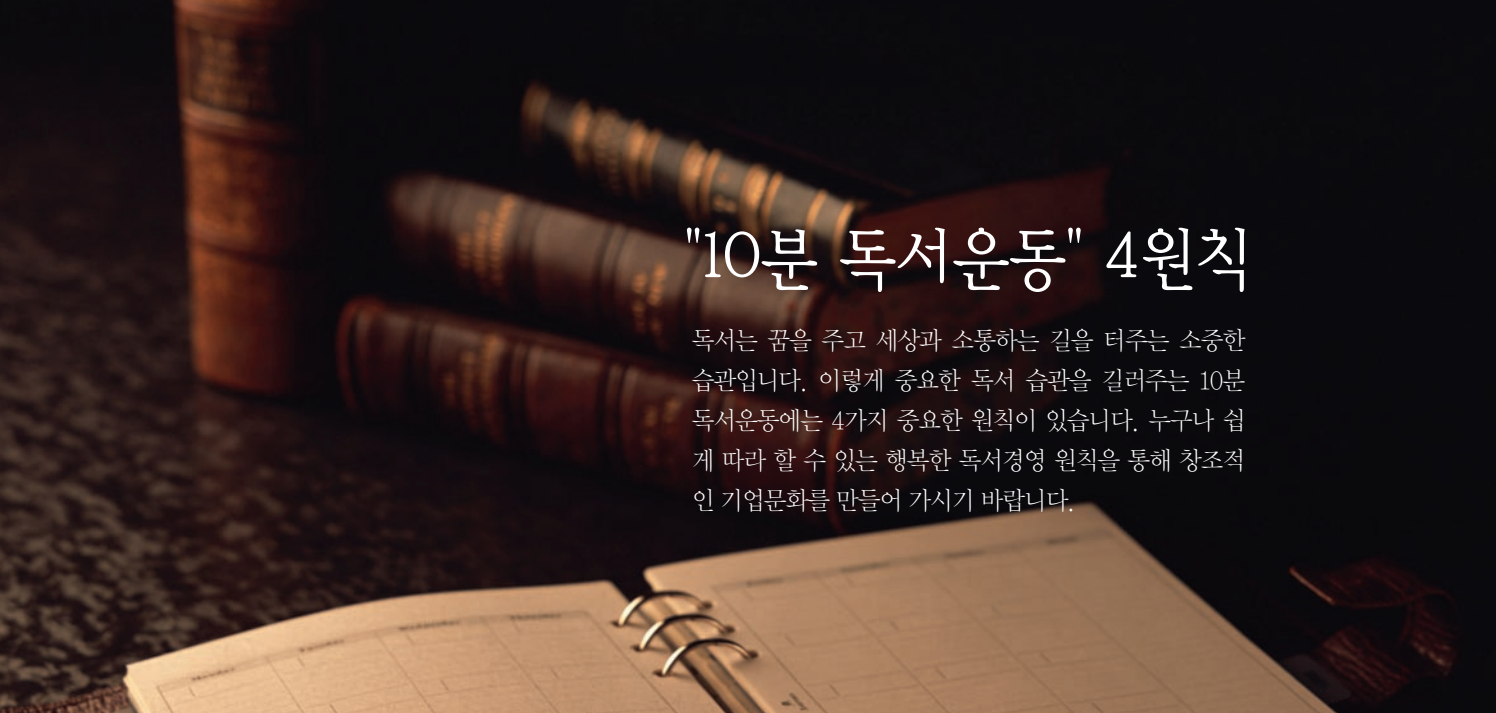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제안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대구교육청이 초·중·고에서 실시하여 연간 104권이라는

놀라운 성과로 어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10분독서의 참된 의미는 하루에 최소한 10분을 독서하는 것이니 만큼 독서하는 게 습관화되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독서문화가 자리를 잡는다면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독서경영을 실시하는 CEO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다 체계화하고 기존의 평생학습 모델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로마인이야기 15권 완간을 계기로 '한길사와 공동으로 '로마스쿨(Rome School)'을 운영하여 리더십과 독서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겠습니다. 동시에 독서문화에 앞장서는 CEO와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독서경영이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원사 여러분들도 각각의 기업 실정에 맞게 활용해 보시기를 제안드리며, 기업차원에서 10분 독서운동을 펼치는 기업에게는 사내도서관에 책10권을 선물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2203-3500 내선107)



"10분 독서운동" 4원칙

독서는 꿈을 주고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터주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10분 독서운동에는 4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행복한 독서경영 원칙을 통해 창조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한원경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옛말에

'자녀 교육의 절반이 독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세상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시대에도 독서는 교육의 수단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한 시대에 독서 없이는 개인은 물론 국가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대비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04년 11월,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생들의 독서실태 조사는 초등학교생의 16.1%, 중학생 49.9%, 고등학생 61.4%가 거의 독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독서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은 물론이고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수업시작 전에 10분 동안 교사와 학생이 함께 책을 읽는 생활독서 운동인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한 결과, 학교에서 사라졌던 아침의 고요와 집중의 시간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독서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대구를 한국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메카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독서운동의 성과가 인정되어 2006년 9월에는 대한민국 독서문화상 대통령표창을 수상하

는 등의 실적도 거양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청이 전개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구의 독서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에 다시 한번 학생 독서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 학생들의 연간 책 읽는 권수가 초등학교생은 104.5권, 중학생은 35.6권, 고등학생은 21.3권 등으로 전국 학생들의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 1천권의 책을 읽는 학생이 생겨나는 등 그 동안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은 물론이고 초등학교생 연간 독서량 100권대 진입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포스트렐은 <미래의 적들>이라는 책에서 미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하는데 독서력 결핍으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미래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독서력이 없는 국가는 독서력이 많은 국가와 경쟁을 해 나갈 수 없으며, 결국 그들이 쓰다 버린 낡은 것을 주워다 쓰는 비극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의 학교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아침독서 10분 운동이 학교의 독서운동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많은 가정, 기업과 직장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책 읽는 문화국가 코리아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人間**

1원칙 : 모두 읽어오

모두가 읽는다는 것은 회사의 직원 전체가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10분독서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부서장(팀장)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책 읽기에 열중할 때 직원들에게 그대로 본이 되며 기업의 문화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 전체에서 진행이 어려다면 부서나 팀단위로 업무 전 10분, 또는 점심 이후, 나른한 오후시간, 퇴근시간 직후 등을 활용해도 좋다.

3원칙 : 좋아하는 책을 읽어오

정해진 필독도서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원하는 책을 읽자는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꾸준하게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스로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도록 사내도서관 도서구입제도 등의 조건을 만들어주자.

자체적으로 책을 가지고 올 경우 부서별로 서로 바꿔서 보는 것도 다양한 책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2원칙 : 날마다 읽어오

독서는 습관이다. 단 10분에 불과하다고 해도 매일아침 반복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이 날마다 책을 읽다보면 다양한 시각으로 성장하게 된다. 직원들간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기업의 문화가 바뀔 것이다. 하루에 10분 정도 책을 읽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책을 읽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에 10분은 책을 읽자는 사회적 제언임을 강조하고 싶다.

4원칙 : 그냥 읽기만 해요

아무리 좋은 독서라도 독후활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행복한 책 읽기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불필요한 부담을 일체 주지 말자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이루어진 독서경영이 책을 좋아하는 매니아 위주로 운영되고, 독후감 등이 전제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책과 멀리있는 직원들을 움직이는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얻는 '마법의 커뮤니케이션' 그 비밀문서를 열어 본다



산 속에 오래 있던 스님이 오랜만에 도심에 나왔다가 찜질방의 소문을 듣고 목욕을 하기로 했다.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 목욕한지가 오래되었는지라 등이 몹시 가려웠다. 마침 탕 안에는 학생 한 명이 목욕을 하고 있었기에 그 학생을 불러 부탁을 했다. "어이 학생, 나 등 좀 밀어주세요" 그러나 대답은 차가웠다. "아저씨가 원래 나보고 등을 닦으라고 합니까?" 스님의 대답, "아! 나는 중이야!" 이에 큰 소리로 되받아 치는 학생의 대답, "짜~샤, 난 중이야!" 그리고는 문을 탁 닫으며 나갔다.

잘못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단면이다. 근본적 문제는 무엇일까? 학생의 잘못은 없다. 다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통하는 언어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일 뿐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비결, 그 첫 번째 방법이 바로 '경청'이다.

경청하라

삼성의 이근희 회장은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날 선친인 이병철 회장이 직접 붓으로 써서 준 '경청'이라는 글귀를 선물로 받고부터 언제나 경청하려 노력했다고 회고하면서 "10여 년 경청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큰 그룹을 경영하면서도 일일이 직접 챙기지

않고 핵심 문제만 처리하고 있으며, 회의나 토론 시에도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하고 단지 '화두'같은 것을 숙제로 주어 임원들의 긴장을 유지시키면서도 창의력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듣기를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왜 경청을 하지 않는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 네 가지 요소 중 일반 학교에서는 '듣기'에 대한 교육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을 잘 하는 사람은 많지도 듣기를 잘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듣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1) 대화의 습관을 바꾸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하기를 좋아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관점을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니 말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을 바꾸어 보자.

'20%의 원인제공이 80%의 결과를 산출한다'는 개념의 '파레토 법칙'이 이미 세상의 거의 모든 일에 범용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대화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원칙을 사용해 보자. 20%만 말하고 80%를 듣는데 사용한다면 당신은 당장에 굉장한 소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므로 잘 들어주기만 해도 상대방은 나의 편이 되는 것이다. 투자에 비하면 그 소득이 실로 엄청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손자방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상수라 했다. 듣기만 하여도 상대의 호감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많은 말을 하여 오히려 그 신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있는가?

2) 상대의 입장에 서서 듣자

경청이란 단지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달되어지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나오기까지의 배경과, 그 내면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아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만 상대의 마음 속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대학(大學)에서는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자체가 갖는 정보전달 능력은 7%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93%는 비언어적 요소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다. 말하는 사람의 자세, 눈빛, 몸짓, 억양, 음성 등 많은 요소들을 면밀히 관찰할 때에 비로소 그의 진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갖추기 쉬운 '경청' 능력을 배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자. **人間**

송항섭 LMI 수석퍼실리테이터

Attitude is Everything! 성공하는 리더의 퍼스널 리더십과정

지속적인 혁신은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며, 성공하는 조직의 경쟁전략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변화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돕는 검증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만 착심삼일이 되고 만다. LMI의 퍼스널 리더십 프로그램은 지난 40여 년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수없이 많은 개인과 조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과가 놀랍게 향상되도록 도와 온 검증된 프로그램이다.

■ 한국엘엠아이(주) 소식

- 효과적인 퍼스널 리더십(EPL)과정 77기 개강
3월 14일(수) 오후 7:00 ~ 9시 30분, LMI 본사 교육장(대청역)에서 개강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성과향상을 원하는 기업의 임원, 팀장,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한국엘엠아이(주)
Tel. 02-2202-8700 / Fax. 02-445-2086 / www.lmikorea.com
- EPL과정 75기 수료식이 2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부터 송항섭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LMI 본사교육장에서 있었다.
- EPL과정 숙명여대 8기 12분의 교수가 2월 22일(목) 오후 4시 30분, 안효열교치의 진행으로 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수료했다.
- 한경아카데미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LMI EPL코칭 과정이 진행 중이다.

■ 한국엘엠아이 라이선스

Big Dream & Success 모임안내

- EPL 과정 KICK OFF
매주 금요일 오후 2시~6시, BIG DREAM & SUCCESS 안국교육장에서 공한수 원장의 진행으로 열리는 설명회에 관심 있으신 개인, 기업, 단체의 전문직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 및 사내교육 문의 : Tel. 02-774-3230 / www.whynotyou.co.kr
- 제 41차 LMI 수료자모임
3월 12일(월) 오후 6시 30분~9시, BIG DREAM & SUCCESS 안국 교육장에서 유포피아나무를 주제로 박교수 동국대 교수의 강의를 있을 예정이다. 관심 있는 동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LMI 정기 등산안내
3월 24일(토) 오후 2시, 지하철 3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모여북한산등반을 합니다.

성공과 행복

조용모 해피라이프개발원 원장



성공한 사람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었고, 행복한 사람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대학입시 시즌을 거치면서, 원하는 일류대학에 합격한 사람들은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겁고,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덩달아 입가에 미소가 마를 날이 없다. 그러나 그 반대의 저편에서 쓴잔을 맞은 사람들과,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붙고 보자고 내민 인생들은 세상의 고통을 혼자만이 떠 안은 양 고개를 떨구고, 그 자녀의 부모들은 죄인이라도 된 양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진다고 한다.

과연 인생은 그런 것인가? 좋은 대학, 일류대학을 가면 그만큼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행복할 수 있느냐가 아닐까?

60의 나이를 향해 가는 내 인생에서 나는 두 친구를 떠올려 본다.

J라는 친구는 자타가 인정하는 수재였다.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줄곧 1등을 독식했고, 손에서 책을 놓는 것을 본 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격이었다. 그 친구는 이 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가 재학기간 내 사시에 합격하여 법조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흑백논리 속에 너무 망치를 들고 보이지 않는 못을 박고 있다.

한편, Y라는 친구는 공부보다는 노는 것이 특기였고, 놀 친구가 있어 학교를 다닌다는, 자타가 인정하는 '땡땡이' 친구였다. 학교 성적은 50명 중 45등을 맴돌았고, 공 차는 체육시간만이 그에게는 가장 신나는 시간이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그 지역 지방대학 미달학과인 농과에 들어가 겨우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후 4H운동에 참여하여 견문을 넓히고, 마을 이장직을 천직으로 여기던 그 친구는 대농의 꿈을 가지고 영농법인을 설립, 대단위 기계농업을 시작하여 성실한 영농인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급기야 민선 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는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자치단체의 장으로 성장

하였으며, 더욱 더 놀라운 일은 그가 땀흘려 일구던 땅에 공단이 들어서는 행운까지 겹쳐 몇 백억 대의 재벌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었던 두 사람의 인생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다.

한 생을 공부에 전념하여,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법조인은 지금도 학연, 지연, 혈연, 사연(사회의 연)으로부터 밀려드는 청탁을 거절하다보니, 진심 어린 친구의 술자리 제의도 거절하며 자신만의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 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논두렁, 밭두렁을 달리던 친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삶의 보람을 찾으며 여유롭게 살고 있다.

나는 여기서 누가 인생을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환갑을 목전에 둔 지금, 장거리 마라톤의 42.195km, 그 중에서도 0.195km의 의미를 음미해 본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지언정, 현실의 처지를 너무 비하하지 말았으면 한다. 인생 제1막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제2막, 제3막의 주인공이 그대가 아니라는 확답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성공'의 반대말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고 하지 않던가?

오늘의 현실에 아파하는 사람들이여! '꿈'을 실은 '미래'라는 기차를 타고, '실패'와 '포기'라는 간이역을 지나, '행복'이란 종착역으로 달려가지 않으시렵니까? **人間**

조용모 원장

1953년 생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형법을 전공했다. 약관의 나이에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던 중 뺑소니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조 원장은 이후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업 노하우를 쌓았다. 동부화재, 신동아화재, 제일화재 등에서 소장, 차장, 본부장,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 해피라이프개발원 원장으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활발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늪은 은행나무의 저력

조 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 前 경제부총리

1975년 서울대학교가 관악으로 이사를 했다. 당시의 서울대 건물들은 천원일률로 성냥갑 같은 4층 건물이어서, 학교의 모양은 똑같은 규격의 기차가 무질서하게 들어선 기차정거장과도 같았다. 황량한 건물주변에 부라부라 나무가 심어졌는데, 내가 학장을 한 사회과학대학 7동 앞에는 은행나무가 들어섰다. 그 중 한 나무는 딴 나무보다는 월등히 커서, 굵은 가지가 다 잘려 보기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다음해 봄이 오니 은행나무들은 고운 잎을 피웠다. 그러나 가장 큰 나무에서는 전혀 잎이 나오지 않았다. 가을이 돼도 그 나무껍질은 거무스름히 말라들고만 있었다. 나는 학장회의에서 제발 빨리 그 나무를 뽑아가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사무국장 말은 달랐다. 그 나무는 심은 사람이 와서 뽑아야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있으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해 봄이 와도 그 나무는 살아나지 않았다. 나무를 뽑는 사람도 오질 않았다. 다른 나무는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의 흉물스러운 모습은 그대로였다.

그런데 아! 웬일인가. 초여름에 접어들 무렵, 그 나무에서 움이 돋기 시작했다. 그 움은 다른 나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굵고, 검푸른 두꺼운 잎은 싱싱하기 짝이 없었다. 참으로 기적과 같은 광경이었다. 죽은 사람의 시체가 관 뚜껑을 제치고 일어서서 주위를 일갈하는 모습이였다. 거의 2년 동안 그 나무는 잔뿌리를 새로 내리서 영양을 껍질 밑에 비축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모르고 빨리 뽑아가라고 다그친 내가 부끄럽기만 했다. 그 나무를 지날 때마다 "내가 너로부터 많이 배웠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고픈 심정이였다.

얼마 전 인간개발연구원의 차이나클럽에서 내가 "중국 경제발전의 문화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다. 그 강의에서 나는 중국은 '괴물과 같아서 사회과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나라'라는 말을 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서양사회를 분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중국과 같은 매우 이질적



인 거대한 나라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또 중국은 위에서 말한 은행나무와 같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까지의 150년 동안 중국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재

생을 위한 저력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의 다른 모든 고대문명이 다 죽었는데, 오직 중국의 그것만이 살아남은 이면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저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큰 은행나무의 모습, 그것이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이다.

세계의 문명에는 시대의 변천에 적응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타입도 있고, 스스로의 정체성조차 상실하는 타입도 있다. 중국문명은 전자에 속함으로써, 어려운 시대를 견디어내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저력이 다른 문명에 젖은 사람들에게는 괴물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 두개의 머리를 가지고 질주(疾走)하는 괴물, 이것이 오늘의 중국의 모습이다. 이 괴물의 저력은 여간해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괴물이 아니라 대단히 큰, 그러나 시장경제이면서도 사회주의의 일 수밖에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임을 알게될 것이다. **人間**





여자는 마음속에 하나씩 보물상자를 가지고 산다!

어릴 적 꿈도, 지금의 꿈도...

품격 높은 당신이라면 하나도 묻어두지 마세요.

쇼핑의 명가 현대홈쇼핑에선 언제라도 마음속에 담아둔

당신의 보물을 꺼낼 수 있으니깐요.

품격 높은 여자의 보물상자, 현대홈쇼핑